

## 대학사회

# 총여 등진 대학가, 남녀 화합 성평등위로 탈바꿈

이서림 기자 silee001@kn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오는 10월, 국제캠퍼스(국제캠) 총여학생회(총여) 존폐를 놓고 학생 총투표가 예정돼 있다. 제28대 총여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총여 존폐 안건을 직접 제정했다. 김 전 부회장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총여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학생들 사이에 부유하는 상황이다”며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 총여만으로는 학내 모든 성을 아우르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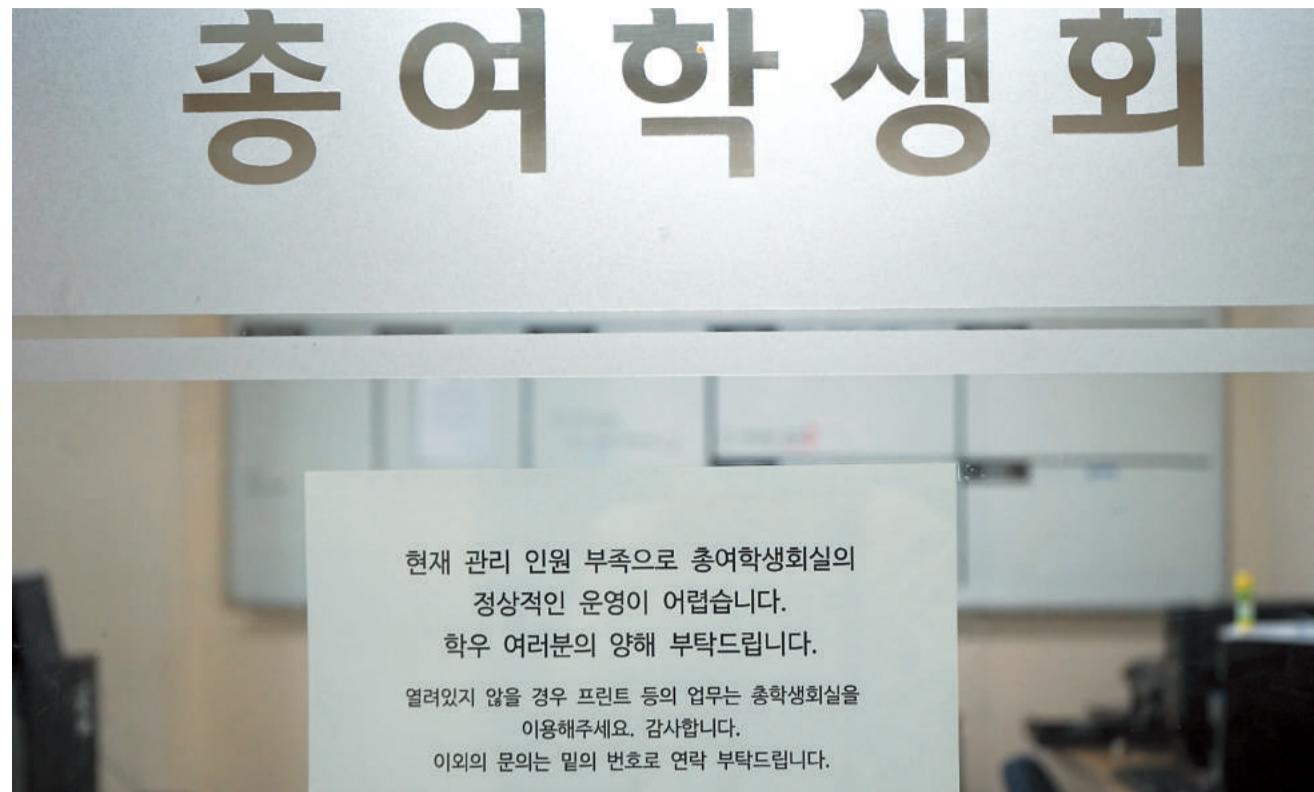
대학가 총여는 1980년대 후반 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우리학교 총여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약 3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최근 후보자 미등록, 남학생 역차별 논란, 자치회비와 투표권 논란,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존폐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리자’에는 ‘남학생이 자치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총여 투표권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총여 회칙 제2조에 따르면 ‘본 회는 회원의 권리 증진 및 평등한 학생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한 달 사이에 총여 존폐를 논하는 대자보가 6개나 불기도 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변화도 있었다. 2016년에는 국제캠 총여 투표권이 남학생에게도 개방됐다. 동시에 회칙 개정으로 남학생이 총여 학생회장 및 부회장으로의 출마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제28대 총여에서 최초의 남학생 대표자가 선출됐다.

그러나 미미했던 공약 이행으로 총여는 학생들의 인식에서 점차 지워졌다. 의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학생 A씨는 “고양이버스나 간식 사업이 여학생에, 나아가 성 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총여 사업은 총여 학생회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특별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총여를 알지만 전혀 기억에 남는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캠 총여는 지난해 11월 9일, 제30대 총여 ‘우리사이’ 양해인(국어국문학 2015) 회장의 사퇴 이후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몰카 예방 사업, 간식 사업, 예방 접종, 고양이버스 등 학생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

기구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해야 하며  
남녀가 화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평등 이뤄야 한다.

”

지난 3월 11일, 총여는 제31대 총여 보궐 선거를 공고했지만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두 달이 지난 5월 14일, 다시 한 번 보궐선거 공고가 이뤄졌지만 역시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지속적으로 출마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캠 총학은 여전히 남학생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총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는 우리신문이 지난 2013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존폐 고민하는 총여 ‘존재’ 공감대 형성해야/대학주보 제1539호, 2013.4.8.) 당시 설문 조사에 응답한 1262명 중 55.9%(706명)이 총여 폐지를 원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51.6%(365명)은 ‘총여의 역할을 총학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고 17.5%(124명)는 ‘남학생은 총여에 자치회비를 내지만 투표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외에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총여가 아우를 수 없다’, ‘공약 이행률이 떨어진다’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한 65.4%(826명)이 여학생을 위한 기구로 ‘총학 산하 성평등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4.4%(309명)가 ‘총여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127명)의 기타 의견으로는 ‘필요 없다’,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현재 공석인 국제캠 총여를 대신해 총학은 산하기구로 ‘성평등인권위원회(성

평등위)’를 임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총학은 총여 부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앙운영위원회 또한 지난 4월 4일, 성평등위를 시범 운영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다.

성평등위 서정유(전자공학 2012) 위원장은 “총여의 고유 복지사업이었던 고양이버스, 몰카 팀 등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 과급력이 강한 총학에서 시행하다 보니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평등위는 학내 인권, 성평등, 성차별 등의 문제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교내 성폭력 사안은 사실 관계 확인 후 성폭력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외 사안은 경찰과 연계해 진행한다. 또한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성평등위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강의 초청과 도서 구비도 계획 중이다. 서 위원장은 “총여의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며 오히려 전체적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총여가 아닌 별도의 성평등 기구가 총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비단 우리학교만이 아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한양대학교엔 각각 총여가 존재하지만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석인 상태다.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는 총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들은 총학에서 성평등 사안을 관리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비상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 전병수 부회장은 “과거에 여학생위원회가 있기는 했으나 현재는 업무 활성화, 재생산의 실패로 사라졌다”며 “현재는 총학에 소속된 ‘인권연대국서’에서 성평등 의제를 비롯한 각종 인권 사안을 다룬다”고 전했다.

‘인권연대국서’는 구체적으로 인권 친화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카드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인권 대중화 사업을 위한 ‘인권 주간’ 기획, 채식주의 사업, 생리공 결제 활성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성차별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학교 내의 성평등 센터와 연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총학 자체적으로 인권 규약을 제정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전 부회장은 “성폭행 발생 시에 본부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해결 루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공론화 및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해자와 분리, 상담 진행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여 부재에 대해 전 부회장은 “인권연대국서를 중심으로 현재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주도 하에 성평등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총학 자체적으로 인권 의제를 다루기에는 전문성이나 집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설립하여 성평등·인권 의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여성학개론’을 강의하는 정재원(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학가 총여 폐지의 추세에 대해 “과거 총여는 여성 인권을 위해 조직됐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학생 또한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내에 성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기구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접수, 성평등토론회, 밤길순찰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기대하며 남녀가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성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8 서울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1. 훈련일자 및 대상(해당일 09시부터 8시간)

훈련일자	인원(명)	버스(대)	소속
계	761	18	
9. 21(금)	96	2	이과대학(73), 음악대학(22), 무용학부(1) 문과대학(34), 미술대학(4), 의과대학(4), 생활과학대학(10), 서울전공학과(1), 치과대학(1), 한의과대학(2)
10. 4(목)	56	2	
10. 8(월)	477	11	악학대학(27), 경영대학(198), 경정대학(190) 호텔관광대학(62) 대학원(112), 간호과학대학(10), 악학대학(10)
10. 10(수)	132	3	대학원(112), 간호과학대학(10), 악학대학(10)

### 2. 장소 : 육군 제56보병사단 221연대 금곡예비군훈련대(금곡훈련장)

### 3. 버스 출발장소 및 시간 : 청운관 앞 07시 50분

### 4. 전과 등으로 소속과 명단이 다른 경우 예비군연대본부로 통보

### 5. 훈련일 조정 : 허망자는 9. 14(금)까지 예비군연대본부로 요청(9.14(금)일 이후 훈련일정 조정 불가)

### 6. 훈련일 조정 허망자는 9. 14(금)까지 예비군연대본부로 요청(9.14(금)일 이후 훈련일정 조정 불가)

### 7. 복장 : 전투복, 군화

### 8. 훈련 당일 신분증 지참(신분증 미휴대 시 입소 불가)

### 9. 09시 이후 도착자 입소 불가자기 및 대중교통 이용자는 출근시간 교통정체 고려조기 출발!

### 10. 훈련 간 교관 / 조교 통제에 순응(안전수칙 준수, 신체이상 시 즉각 보고하여 조치 받을 것)

### 11. 입소 후 훈련 간 휴대폰 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 퇴소

### 12. 웨어러블 분실 시 개인 변상

### 13. 훈련 전날 음주자제(입소 및 교육 간 음주자 확인 시 강제퇴소)

### 14. 기상(백팩) 휴대자제 및 소지품(휴대폰, 지갑) 관리 철저

## 2018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지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안성예비군훈련장(안성시 금석길 51(금석동) / 네비게이션 : 안성예비군훈련장 검색)

※ 용인예비군훈련장 공시로 인하여 안성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됨

다. 훈련일자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9월 17일(월)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9월 18일(화)	○ 체육대학	
9월 28일(금)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2, 3, 4학년)	
10월 1일(월)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학년), 생체의공학 ○ 생명과학대학 ○ 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10월 2일(화)	○ 경과대학 : 환경학 및 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 동서의과학과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0월 5일(금)	○ 경과대학 : 기계공학과	
10월 8일(월)	○ 경과대학 :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10월 10일(수)	○ 경과대학 : 원자력공학, 학과화학 ○ 응용화학, 우주과학 ○ 교직원	
10월 11일(목)	○ 응용과학대학 : 응용물리, 응용수학 ○ 외국어대학	
10월 12일(금)	○ 대학원(일반), 교육, 아트, 퓨전, 테크노경영	

###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화, 요대, 고무화)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 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허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가 가능함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치장자는 입소불가

### 3. 교통 안내

가. 학교 정문 출발(7:30분) /\* 강남역 지하철 이용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허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 가능)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 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선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일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 09:00 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거나 허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적동등(휴학, 출입 / 수료 등)으로 재학 중인 1년 학생 예비군은 훈련참석 불가

비.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